논문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조 성 훈*

1. 문제제기
2. 유격대 증언자료의 정리
3. 유격전 증언자료의 한계
4. 맺음말

주제어 : 증언자료, 6.25전쟁, 반공유격대, 부대사,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전우회, 전사파견대, 구술사프로그램, 판본, 아키비스트

1. 문제제기

주지하듯이 구술사는 사료가 없거나 부정확한 분야에서 과거의 경

* 한남대 사학과 강사

험을 복원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현대사는 일제의 식민지시대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식민지통치자 중심의 자료가 많고, 전쟁사의 경우에는 문서자료가 미처 보존되지 못하거나 정리되지 못했으며 그 이후 독재정권의 지속으로 문서의 보존이 미흡했다.

이러한 연유로 언론사에서 해방 이후 격동기의 주요 인사의 증언을 통한 '민족의 증언'의 류가 많았다.[1] 그 후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 그 주체도 개인이나 단체에서 학계로 점점 확대되어 증언 대상도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복원이나 혹은 진상규명차원에서 전쟁 전후 빨치산 활동이나 4.3사건, 광주항쟁 등에 관한 증언자료가 등장했다. 서울대 교육사고에서는 1991년부터 교육학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범대학 원로교수에게 구술을 받았고, 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97년부터 일제시기에서 박정희 정부까지 이르는 시기에 구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2003년부터 체계적인 구술사료 수집현황을 파악하여 주제를 공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2]

---

1)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1-8, 1972, 1983; 조선일보사 출판국편,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편, 『비화 임시수도 천일』, 부산일보사, 1984 등.

2) 김귀옥, 「구술사 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즈의 구축」, 한국기록학회,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기록」, 2005.8.5; 이용기, 「한국근현대사 관련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현황」, 이상태·허영란편,『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구술자료총서』 1-4, 1998-2004. 오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사료의 훼손이 많았던 타이완에서도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가 1959년부터 구술역사계획을 발전시켜 그 성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訪問·紀錄 黎志剛,『李承基先生訪問紀錄』, 臺北: 中

6.25전쟁기의 구술자료도 근현대사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료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부문이다. 외국 연구자들은 이 시기 한국군의 자료공개를 요구하지만,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이전 중앙문서관리단)에는 인사기록과 전투상보 외에 정책결정과정, 육군참모총장이나 사령관 등의 전투지휘 관련 문서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6.25전쟁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자료가 미국자료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3] 심지어, 전란 중에서 일선 지휘관들은 군인사기록 마저 소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참전자의 공훈, 사상자에 대한 보훈 등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증언자료를 가장 일찍부터 수집한 곳은 전사편찬위원회, 공군본부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등일 것이다. 1964년 발족된 전사편찬위원회는 한국전쟁사를 편찬하기 위해, 전란 중 산일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참전 장병 4,139명으로부터 증언을 채록하여 6.25전쟁사 편찬에 반영했다. 그 후 베트남전쟁시기에는 전쟁 당시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현지에 연구자를 파견하거나 귀국 장교들을 대상으로 모두 782명의 증언을 채록했다.[4]

공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도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역대 참모총장, 참전 장병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해 「면담록 1-5」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증언을 청취하고 주요 기고문 등을 보완하여 증언록을 발간했다[5]

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2000).

3) 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 문헌중심적 역사연구에 대한 새로운 역사쓰기를 모색하면서 거의 기록을 갖지 못한 밑으로부터의 연구를 표방하면서 월남민과 충남 예산군 시양리 주민의 증언을 받아 연구성과를 내기도 했다(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비, 2003).

4)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3, 군사편찬연구소, 2001-2003;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군사편찬연구소, 200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는 1984년부터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증언사업을 추진하여 280여 명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3명의 증언청취에 대한 증언록을 발간했다. 육본 군사연구실에서는 창군 원로나 참전자의 증언청취를 계속하면서, 역대 참모총장, 육군정책입안자, 해외참전 및 해외파병 주요 직위자에 대한 증언청취를 넓히고 있다.[6]

그런데 본고에서 다룰 전쟁시기 반공유격대는 작전 대상지역이 북한지역이나 적 점령지 후방지역에 대한 침투활동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으나, 그들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군 당국과 학계에서 아군 유격전사의 연구는 소홀했다. 6.25전쟁이 고전적이고 제한적인 정규전으로 인식되어 주로 정규작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유격전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먼저 떠올리는 실정이었으므로,[7]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소홀했다. 따라서 전쟁시기에 관한 증언록 가운데 '군번없는 애국자'로[8] 불리웠던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증언자료는 정규전 증언록의 비중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 때문에 참전 대원들이나 전우회에서 기록을 남기고 부대사를 편찬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스스로가 그들의 활동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거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러

---

5)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 증언록』, 2002.
6)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업무현황」, 2004.12.17, 40면; 육본 군사연구실, 『6.25전쟁 증언록』 1-2, 2004.
7) 이기건, 『구월산 여장군』, 우현사, 1953. 1, 1-2면 ; Ian F.W. Beckett, *Encyclopedia of Guerrilla Warfare*, CA : ABC-CLOIO, INC., 1999, p. 127.
8) 최경덕, 『역사의 목격자』, 을지사, 1983, 84면.

한 증언기록자료는 일방적인 회고나 증언으로 역사적 의미있는 사실에 대해 구술사가 등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고 보존한 구술자료와는[9] 구분된다.

이러한 증언자료는 객관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문헌사료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전쟁사 연구에서 소홀했던 비정규전 활동을 복원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따라서 본고는 유격전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10]을 토대로 이러한 구술사적 접근이 쉽지 않는 반공유격대의 증언자료에 대해, 자료가 정리되는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 한계를 정리하면서 그 활용, 내용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려는 것이다. 회고록이든 참전자의 증언이든 정리된 기록에 대해 과장이나 오류를 지적한 경우가 많지만, 과거 오랫동안 그들의 주장을 검증할 자료의 빈곤을 이유로 부대사나 증언자료에 대해 의문과 불신을 가지면서도 체계적인 비판이 없었다.

2. 유격대 증언자료의 정리

1) 군내 유격대 자료 수집

6.25전쟁시기 자료를 수집 및 정리했던 곳은 각군 군사연구실, 정훈

9) 임영태, 「한국현대사관련 회고록·전기자료 목록」, 『역사와 현실』 3, 1990; 정혜경, 「한국 근현대사 구술자료의 간행 현황과 자료가치」, 『역사와 현실』 33, 317면; Donald A. Ritchie, *Doing Oral History*, Oxford Univ. Press, 2003, p.19.
10)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국, 각 사단 등이었다. 육본 군사연구실의 경우, 1949년 12월 1일, 작전교육국 예하 편찬위원회가 창설되었다가 1951년 2월 16일 전사감실으로 재편되어 6.25전사 자료를 수집했던 것 가운데 대개 전투상보에 그쳤으나, 여기에 일부 유격대 작전명령 자료가 남아있다.[11]

정훈국 전사편찬회는 전쟁 관련 자료를 정리한『한국전쟁 전란지』를 발간했다. 이 사업은 당시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의 역할이 컸다. 사학자인 그는 임진왜란시 가장 치열한 작전지휘를 하면서도 그날 그날 쉬지 않고 기록을 남긴 이순신의 난중일기,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징비록'을 그들이 세운 군사적 위훈이나 정치적 업적보다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군이 후퇴하던 중 대전에서 '戰史係'를 두고 전황과 내외정세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가 9.28 수복후 10월 중순부터 전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사편찬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김상기)를 설치했다.

전란지의 구성은 개설, 일지, 문헌, 통계와 도표로 이루어졌는데, 아쉽게도 편찬 방침에서 공표된 자료 위주로 정리하고, 아직 발표되지 않는 자료나 또 널리 알려지지 않는 숨은 사실 내지 구전자료는 후일로 미루었다.[12] 수록 대상을 군관련 외에 정치, 경제 , 문화교육 등을 망라함으로써 그 능력에 비해 대상이 너무 광범위했다.

전후에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전쟁사를 서술하기 위한 증언을 청취했을 때 일부 정리되었으나 정규전에 중심을 두었으므로 유격대에 대해서는 일부의 증언록이 있다. 1980년대 들어 육본 군사연구실에서 유격대 간부 및 대원들에 대한 증언청취가 이루어졌으나 구술적인 방법을

---

11) 「군기록물 어떻게 하나?」,『국방일보』2003.4.12.
12)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195.8, 범 1.

동원하기 보다는 대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한 수준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했다.

1951년 5월 20일 소실되어 가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육군은 부산 용호동에 구 일본군 탄약고인 동굴창고를 인수하여 육군 중앙문서보존소를 창설했다. 이는 정부문서고보다 1년 먼저 보다 세워져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13] 그러나 2003년 「기록물관리규정」이 육군에 적용되기 전까지 일반문서는 부대자체에서, 인사관련문서는 기록보존소, 시청각자료는 정훈실, 역사자료는 군사연구실에서 보관했다. 실제로 군사연구실에는 전투상보, 기록정보관리단에는 인사명령・병상일지・상벌기록 등 인사관계와 증빙서류에 그치고, 수뇌부의 회의록・조직개편・무기획득 등 정책관련 자료는 거의 없다.[14]

사단급 부대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전사과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병 제8사단에는 전사부(전사부장 오병호 대위)가 설치되었고, 각 연대와 공병대대에 전사과가 있어, 대원들의 기록을 정리하여 『달마』라는 무용담집을 발간했다. 오대위는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사실도 이것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과연 후세에 그 누가 용감무쌍한 국군장병들의 공훈을 찬양하여 줄 것인가"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5] 부대의 역사보다는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목적이 컸지만, 이왕의 무용담과는 달리 전과를 과장한 것이 아니라, 무훈을 세운

---

13) 「군 기록물 전산관리한다」, 『국방일보』 2005.5.3; 서석제·이효상, 『육군기록물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24면.
14) 허용만, 『군행정』, 육본, 1971, 267-268면.
15) 보병 제8사단 전사부, 『달마』 1, 1951, 군사편찬연구소.

대원을 직접 만나고 그의 상관과 동료를 만나고, 무훈을 세운 장소를 찾아 사실에 충실한 기록임을 강조했다. 각 연대 전사과에서 무훈을 남긴 전몰 혹은 생존해 있는 장병들의 실전담을 수록한 것이다. 그 외에 시와 포상란이 있었다. 그들은 제2, 3집을 기약했지만 실제 발간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미약했기 때문에, 사단사를 편찬할 때 이미 전후 20년이 경과한 상황이어서 문헌 자료의 수집과 참전자의 증언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16]

작전활동을 주로 정규군의 활동을 주로 인식했던 전쟁 당시 이처럼 정규군의 경우도 자료 수집이 미흡했으므로 유격대활동에 대해 관련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했다. 전쟁 당시 종군기자의 손길이 닿지 않아 일부 남아 있는 종군기에도 유격대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다.[17]

다행히 종군 작가단 가운데 소설가 박계주가 전쟁 직후 "통계를 위주로 하는 전사편찬만으로 그치기에 너무도 슬프고 기막히는 많은 사실들이 전쟁이면에 있었다"며 한 소설가가 구월산유격부대, 백마유격대, KLO 첩보원의 귀환기, 한국유격전의 영웅 채 부대장의 혈투기 등을 소개함으로써[18], 유격대 활동을 객관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 후방국민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정훈적 성격의 『구월산 여장군』, 『구월산』이 발간되었다. 서해안 지역의 유격대 활동을 잠시 지원하기도 했던 해군 간부가 회고록에서 일부 기록을 남겼다.[19] 그러나 아쉽게도 전쟁 당시 기억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생존 유격대 간부들의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

16)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1966,
17) 문제안, 『 종군기 남북 3천리』, 낙산각, 1956.
18) 박계주, 『자유공화국 최후의 날』 1-2, 정음사, 1955.
19) 강기천, 『나의 인생여로』, 계몽사, 1995.

따라서 반공 유격대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유격대 전우회에서는 전쟁 당시의 작전일지, 전투상보, 운용문서 등을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당시 기록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어느 부대는 간부들의 갈등으로 부대기록이 파기된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전후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홍수 피해를 입었거나 잦은 이사 등으로 일실된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1991년 10월 특전사령부에서 역사관을 세우면서 전쟁 당시 유격전 자료를 일부 수집한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일부 자료는 전쟁기념관에 기증되어 보존 혹은 전시되어 그들의 활동상을 전하고 있다.

좌익 빨치산 활동의 연구는 전쟁을 전후한 토벌작전에 대한 정리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남한지역에서 활동했던 좌익 빨치산 활동에 대한 회고록, 자료집·소설·영화 등이 활발히 소개되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0] 북한에서도 『조선통사』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 좌익빨치산의 주요 활동을 다루었고, 최근에는 구월산빨치산을 비롯한 다른 게릴라 활동에 관한 연구 산물을 발간했다.[21]

하지만 군 당국이나 연구자들이 반공유격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군 당국에서는 그 동안 정규 작전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유격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나 부대에서만 취급한 실정이었다. 그 결

---

20) 양영조, 「한국전쟁시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한·일 국제세미나; 김광운,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군사』 48, 2003. 4 ; 박동찬,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분석 」, 『군사』 49, 2003.8; 육본정보참모본부, 『공비연혁』, 1971 ; 김남식,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1-7, 1996 등.

21)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3 ; 『조선통사』 하, 1987 ; 강근조,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과, 육군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교훈분석도 소홀했다.[22]

다만 일부 유격대 활동 가운데 부대장이 현역이어서 정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유격대의 기록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23] 1955년 6월 30일, 국방부에서 구월부대의 활동사인 『구월산』을 발간했고,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종벽이 육군본부 『전사』 69~73호에 「한국의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육군대학에서도 유격작전 사례로 연구했다. 그 외에도 명유격부대와 영도유격대에 관해 소개했다.[24] 1985년에는 『백골병단』이 발간되었다.

소부대 전투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안악부대의 구월산 전투, 호림부대, 백마부대, 영도유격대 등의 전례가 분석되었다.[25]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작전명령철이나 부대 운용 관련 문서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유격전의 특성상 전쟁 당시 언론 등에서도 다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까닭에 그들은 새로운 보충적 증언을 통해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증언자료에 의존한 것이므로 객관적 검증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관련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하자, 유격대 참전 미군 장교의 회고록이 나타나면서,[26] 유격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

22) 육군본부, 『전쟁원칙』, 1957; 육군본부 군사감, 『병과별 부대역사』, 1959; 『육군사』, 1955; 육본부, 『전투교훈』 2-3, 1990.

23) 『군사』 22, 육군본부, 1956. 5. 20.

24) 『군사연구』 62, 육군본부, 1966; 「구월산 유격작전」, 『군사평론』 88-89, 1967; 전두열, 「동해안지구 유격전(실전기)」, 『전사』 80, 1974.4; 전두열, 「동해안지구 유격대」, 육본, 『전사』 84, 1976.6.

25) 「안악부대의 구월산 전투」, 『전사연구』 10, 육본, 1979; 『전사연구』 12, 육본, 1981; 특전사, 『특수전사례집』, 1986.

26)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s", Army, Nov. 1984; Douglas C. Dillard, *Operation Aviary: Airborne Special Operations-Korea, 1950-1953*, Trafford, 2003.

한국군의 경우와 달리 전쟁이 나자, 미 육군부는 한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8개 사단에서 각각 전사파견대(Military History Detachment)를 보냈다. 1952년 1월, 전역(戰役) 역사과는 8개의 파견대를 통합 운용했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낳아 각 전사파견대의 증언채록 능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각 전투부대(line units)에서 역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결여로 지원이 여의치 않았던 점이 큰 문제였다.[27] 그러나 이들의 활동 결과 미군 자료와 함께 유격대 관련 구술자료도 남길 수 있었다.

1952년 하반기, 육군 제 8086부대 부대장 댈리(Arthur S Daley) 중령이 1952년 여름부터 유격대 연구를 위해 모색했다. 제8240부대장 알렉산더 2세((Frederick B. Alexander Jr.) 대령은 유격대 작전형태에 관한 기술(narrative account)이 장차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1952년 10월 17일 극동군 연락단으로부터 제8086부대가 한국전에서 북한인 유격대에 관한 연구를 착수해도 좋다고 동의했다. 10월 하순, 제8086부대장 댈리 중령은 모스맨(B. C. Mossman) 소령과 함께 백령도로 갔다. 이들은 2주 동안 작전기록을 확인하고 미군장교와 한인 유격대원들과 면담을 한 후 정리했다.[28]

전후 미 트루먼 도서관(The Harri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Missouri)이나 아이젠하워 도서관(The Dwight D.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Kansas)에는 대통령의 재임 당시 행정부에 참가했던 인사들의 구술자료가 정리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처럼, 미군 내에서 참전 장교들의

---

27) Robert K. Wright, Jr., "Clio in Combat: The Evolution of th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The Army Historian* No. 6, Winter 1985 (www.army.mil/cmh/reference/History/clio.htm, 2005년 3월 31일 열람).

28) "UN Partisans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s",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1400-1.

구술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는 기관이 미 육군 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harisle, Pensilvennia)이다. 이곳에서 고위 간부 구술사프로그램(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에 의해 1980년대에 미 제8240부대 유격대에 활동했던 밴더풀(Jay D. Vanderpool) 대령, 무겔버그(G. E. Mugelberg) 준장, 스타인벡(P. W. Steinbeck) 대령, 마츠코(Michael A. Matzko) 중령 등을 인터뷰했다. 특히 밴더풀 대령에 대해서 1983년 미 육군대학원(War College) 교과과정 중의 하나로 중령 맥퀘스천(John R. Mcquestion)이 인터뷰를 했고, 다른 장교들은 한국전 당시 유격작전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29]

2) 유격대원과 전우회의 역사보존 노력

6.25전쟁 시기 크고 작은 여러 부대에서 활동했던 유격대원들은 "민족의 운명을 지킨 민족의 용사로서, 인류의 자유를 위한 십자군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자부"했으나,[30] 그들의 공과가 소홀히 다루어진 데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국난에 맞서 싸웠던 민간인 항쟁의 역사를 체계화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31] 그들 스스로 역사보존 노력, 운동 아니 '투쟁'을 해왔다. 대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이를 단행본까지 발간에 이르지 않다고 해도 많은 기록이 있다.[32]

---

29) USA Military History Institute, "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 1983, 1985.
30) 1대대 義人, 「총궐기 승리의 길로 돌진하자」, 『당나귀』 4, 1953. 2, 12면.
31) 「잊혀져 가는 '군번없는 용사들'」, 『중앙일보』, 1982. 6. 25 ; 「민간인 호국영령 한 풀어주세요」, 『한국일보』, 1984. 6. 8.
32) 김재율, 「반공전투수기」, 1981; 최동식, 「함흥 사포리 무장청년단 활동상황」, 1981; 김병준, 「6.25전투록」, 1995; 이병두, 「오뚜기 인생」, 1992; 문기섭, 「나의 걸어 온 길 가야 할 길」(미발간 수기), 1999 ; 장해동, 「불멸의 고원대」, 2005.

이 가운데 건설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영도유격대의 기록을 남기려는 집념으로 거의 1,000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분량을 정리한 황보현의 기록도 기억할 만하다.[33]

일부 대원의 개별적인 노력을 제외하고는 유격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각 유격대 전우회의 역할이 컸다. 1970년대 이후 각 유격부대 전우회가 결성되기 시작해서,[34] 1983년 7월 25일 '황해(서해)지구유격군전우회연합회'가 결성되어 유격전선에서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고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는 노력을 해 왔다. 1992년 12월 동서 연안에서 활동했던 유격대의 부대별 전우회가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를 조직하여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전상자·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다.[35] 이 무렵부터 각종 언론에도 유격부대의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주요 유격대에서는 이미 전쟁 직후부터 위령비 혹은 기념비를 세웠다. 동키(Donkey) 제15부대에서 용유도로 철수한 후, 1953년 10월 13일 전우들이 잠든 북녘땅과 가까우며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마음과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충혼탑을 세웠다. 울팩(Wolfpack)부대에서도 1953년 10월 31일, 강화읍에 이 고장 출신의 군경을 비롯한 유격대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을 세웠다.[36] 육군 제5816유격부대 전우회에서 1981년 6월 25일, 강화도 송해면 하도리에

33)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2000.3.

34) 1961년, 국방부에서 전쟁 중 정규군이 아닌 '비군인 복무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가 창설되었으나(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그 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유지되었다.

35) 연합회 사무실은 이북5도청(서울 구기동 통일회관 117호)에 있다.

36) 『북위 40도선』, 338-339면 ; 박상준, 「반공유격대원 충혼탑 비명」, 해주고보·동중동창회, 『백세청풍』, 1982, 49면.

‘반공유격용사위령탑’을 건립했고, 1984년 10월 3일 부산 영도에서 활동했던 영도유격대가 기념비를 세웠다. 1987년 6월 24일 개마고원반공유격대 기념사업회에서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통일공원에 위령탑을 세웠고, 1990년 11월 9일 백골병단 참전전우회에서는 1965년 이후 추진하던 전적비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백골병단 전적비’를 건립했다. 2001년 11월 울팩 제2부대는 교동도에 ‘유격군충혼전적비’를 세웠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자료 수집보다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다. 1961년 6월 한국일보사에서 전쟁 중 조국수호에 숨은 영웅적 행적을 찾아내 반공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6·25 반공애국유적부활운동’을 전개하여, 유엔군 산하의 반공유격대(동키부대 : 제8240부대)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1961년 8월 15일, 윤보선 대통령 휘호와 한국일보의 협조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반공유적비를 세웠다.[37] 그 후 1977년 6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3,096위의 영령을 봉안한 유격전 위령비가 세워졌다.[38]

참전자들은 “여전히 꿈속에서는 종종 당시의 총성이 들릴 만큼 생생히 남아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전후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바빠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둔채 애써 잊고 지냈던 전쟁이 되었으나,[39] 유격부대사가 점차 발간되기 시작했다. 전쟁당시 황해도 반공의거를 주로 다

---

37) 『한국일보』, 1961. 6. 30 ;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서』, 1976, 12, 22면 ;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4.

38) 1970년대 중반 정부에서 유엔 16개국 참전비를 세울 때, 마침 유격대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어(이원복, 「6월의 산하가 전화에 물들 때 : 유격대」, 『조선일보』, 1975. 7. 8)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39) 한동근(울팩제8부대), 「전투기록, 잊을 수 없는...」, 2002.8.

루면서 일부 유격대의 활동을 간략히 서술한『항공의 불꽃』이 발행된 이후, 유격부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긴 참전자들이 일부 부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40]

이미 1960년대 초반 유엔군 산하에서 활동한 유격대전우회에서는 전사편찬자료를 수집하여 전사를 발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이 때「한국반공유격군개황」을 정리했다.[41] 1970년부터 황해도 안악군, 평북 정주군 등 각 군지와 황해도지 등의 향토지가 발간되면서 유격대의 활동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군지에 수록된 내용은 대개 이미 발간된 기록을 재록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쉽다.

생존 유격대원들은 직접 자신을 알리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역사보존운동을 활발히 했다. 1968년 동키 제15부대(백마부대)에서 부대사를 정리한 이후 주요 부대 전우회에서 부대사를 발간했다.[42] 미 중앙정보국 산하 유격대였던 영도유격대도「영도유격부대소사」(영도유격부대기념사업회, 1989),『Y부대송가』(주홍길, 1988),『영도유격부대』(영도유격부대 전우회, 2001),『전사 - 영도유격부대동해삼도실전기』(미동훈, 영

---

40) 이경남,「유엔군 유격대 당나귀부대」,『신동아』, 1965. 8 ; 이경남,「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신동아』, 1969. 1 ; 조동환,『항공의 불꽃』, 보문각, 1957 ; 김종벽,『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후』, 서울인쇄주식회사, 1967 ; 이형우,『빨치산들의 섬』, 새시대문화사, 1983 ; 주홍길,『Y부대 송가』, 도서 출판 평화, 1988 ; 이춘복,『뜸부기는 오늘도 '조산들'을 날고 있다』, 가톨릭출판사, 2002 등.

41)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27-28면.

42) 김응수,『북위40도선』(D-15),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1974 ; 수월부대전사편찬위원회,『은율유격전사』, 1986 ; 유격군울팩3부대전우회,『유격전사』, 1990 ; 백호부대유격군 전우회,『백호부대유격전사』, 1992 ; 이영재편저,『학도유격부대 전사』, 명성출판사, 1992 ; 대한유격대 참전동지회,『백골병단 전사』, 1993 ; 호림유격전우회,『호림부대전사』, 1999 ; 영도유격부대전우회,『영도유격부대』, 2001 등.

도유격부대전우회, 2002) 등을 정리했다. 해주유격부대 전사의 경우, 1984년 전우회를 결성한 후 곧 전사편찬 위원을 두고 자료수집을 시작했으나 2003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43]

여러 부대사 가운데, 옹진학도유격부대사의 경우 이미 1970년 발간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추진하던 회원이 작고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료수집과 170여 명에 이르는 대원들의 증언을 통해 1992년에야 완성되었다. 집필을 담당했던 이영재는 전쟁 중 일기를 계속 썼으며 군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대원 또한 다른 유격대보다 학생들의 비중이 커서 당시 문서가 일부 남아있었고, 대원들 사이에 일기도 몇 편이나 남아있었다.[44]

그 외에 부대장의 「옹진학도유격대 투쟁사」(이종학, 1986), 정보참모의 「옹진학도유격대 공작대 활동사」(권승훈, 1986), 제2대대장의 「옹진학도 유격대 제2대대 전투사」(장하상, 1987), 백호공작대장의 「백호공작활동사항」(오병준, 1986), 「옹진학도의용대 투쟁사」(강석인, 1986), 「나의 회고록」(신은양) 등 증언 혹은 구술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45] 이 부대는 많은 사진 자료도 가지고 있었다.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동키 제4부대에서는 부대사 외에 백호부대 증언록을 발간했던 점은[46]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이들은 유격대 증언에 대한 체계적인 구술을 어느 기관에서도 하기 전에 이미 비디오로 녹화를 남기는 노력을 했다.

---

43) 해주유격부대전우회, 『해주유격부대전사』, 2003, 23-24면.
44) 조남혁, 「 일기」 1951. 11. 25-1956. 1. 31 ; 이영재, 「일기」, 1952, 1953 ; 전인수, 「바보일기」 1953, 1954. 1-3; 「부대역사」 유학본발 제255호.1953. 9. 20등
45) 『경기일보』 1992. 10. 24 ; 『인천일보』 1993. 6. 25 ; 이영재 편저, 앞의 책.
46) 박두호, 『산 증언을 통해 본 백호유격부대의 빛나는 전투』, 백호부대전우회, 2004.

특히 결사유격대의 경우, 전인식은 『나와 6·25』(1981)를 발간한 후, 육군정보학교 등 관련자료의 발굴과 증언을 위해 노력해 자료가 발굴되거나 그들의 존재를 환기시키기 위해 수정증보판을 거듭했다. 즉 『적 후방 300리의 혈투 백골병단』(1988), 『임진강에서 내설악까지』(1991), 『영광의 얼』(1992), 『백골병단전사』(1993), 『설악의 최후』(1994), 『백골병단 전투상보』(1997), 『누구를 위한 적진 800리의 혈투인가』(1999),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1999), 『적진 800리의 혈투』(2003) 등 수 많은 책이 발간되었다.

1981년 전인식은 그의 첫 저서의 머리말에서 '가짜군인'이라고 자조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동안 책 발간과 진정으로 생존 대원들은 '군인 아닌 군인'으로 처리된 데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정식 계급으로 처리되었다. 생존 대원들은 여러 전공에도 불구, 참전군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쟁 중 임시로 부여된 군번 및 계급을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끝에 2004년 부대 창설 53년 만에 정식 계급과 군번을 부여하는 동시에 보상조치도 추진 중이다.[47]

유격대원의 활동 외에도 중앙일보사에서 6.25전쟁 20주년을 맞이하여 1970년 4월 1일부터 '민족의 증언' 가운데 는 주요 유격부대의 간부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유격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48] 당시 생존해 있던 이영순 대령, 조병찬 중위(통역) 등 국군 연락장교단의 진술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격부대장뿐만 아니라, 참모장, 특공대장, 대원 등 증언 대상을 확대했으나, 이 때의 증언도 유격대 활동에

47) 『대구일보』 2004. 7. 30.
48)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 5, 1972, 1983.

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부대사의 주장을 뛰어넘기 어려웠다.

1991년 북한연구소가 북한지역과 그 피난민의 반공투쟁활동을 정리한 『북한민주통일운동사』에서는 서해안 유격대의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이 때 관련자들의 증언이 추가되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 유격전 증언자료의 한계

구술자료도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불러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는 점에서 문헌사료 못지않게 중요하다(口述歷史資料, 其重要性不亞於文獻檔案).[49] 그러나 이미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술자료의 주관성이나 기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유격전 관련 증언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몇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구술자료는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는 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판본(version)이 나올 수 있다.[50] 그런데 유격대의 경우 수 천명의 대원이 생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전우회에서 정리한 부대사가 기억의 틀이 되었기 때문에 대원들이 독자적이고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

49)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219면; 口述歷史組, 「弁言」, 1994, 訪問·紀錄 黎志剛, 『李承基先生訪問紀錄』,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0.

50)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222면.

따라서 여러 유격부대사가 발간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종합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간부들이나 대원들의 증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원 개개인의 기억보다는 집합적 기억이 부대의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제한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증언내용에는 '사실'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 때로는 사실과 구분되는 '신화'가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이미 정리된 사실을 토대로 증언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 어려운 때도 있었다. 더욱이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증언 청취사실, 당시 보고서나 공적서 등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부대중심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히 전과 부분은 자신의 부대의 영광을 위해 전과의 과장에 대한 유혹이 발생할 수 있었다.

증언자의 지위나 역할을 과장한다. 1986년 3월 육본 군사수집관리과장 등과의 면담에서 이영순 대령(예비역)에게 미 제8240부대의 초대사령관으로 전제한 질문에 대해 그는 주한 8240부대 초대사령관으로 취임했다고 답변했다.[51]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51년 7월 26일 미 극동군사령부 연락처(FEC/LD), 제8240부대를 창설했다. 주한연락처(FECLD/K)는 극동군사령부 연락처의 통제를 받았다.[52] 주한 연락처는 유격전과(Guerrilla Section)와 첩보전과를 편성하여, 유격전과 첩보전을 망라했다. 1952년 9월말, 사령관은 알렉산더 대령, 부사령관은 아이베

---

51)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세대』 1967.2, 190면 195면; 이영순(예, 대령), 「8240부대 유격전」, 1986.3.14, 육본 군사연구실; 육본 군사연구실,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766면; 조이현, 「한국전쟁기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보존』 12, 2000, 226면.

52)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11;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스(Mackey Ives) 대령, 유격전과 책임자는 밴더풀(Jay D. Vanderpool) 중령이었고, 첩보전과는 두페(Robert L. Doupe) 중령이 담당했다. 당시 유격전과는 유격사령부로 불려져서, 밴더풀 중령이 주한연락처 유격사단장이었고, 두페 중령은 정보국장이었다.[53] 국군과 유엔군과 합동작전의 긴밀한 상호 연락을 위해 육군본부에 국제연합연락장교단이 창설된 것처럼, 미 극동주한연락처 파견단 본부에는 한국군 육군 파견장교단이 있었다. 장교단 가운데 계인주 대령이 첩보업무를 맡았고, 1951년 9월 초 '유격사단 부사단장'으로 이영순 대령이 임명되었다.[54]

백마부대의 경우도 비슷한 예이다. 부대의 소속을 둘러싸고 증언이 엇갈리고 심지어 갈등을 야기했다. 평북 정주에서 활동하던 반공청년들은 애도(艾島)로 옮기면서 애도부대로 불렀는데, 그 후 초도로 남하하여 연풍부대와 합류했다. 연풍부대가 구월부대로 확대 개편되자, 대원들은 구월부대의 제3연대가 되었다.[55] 그러나 백마부대장 김응수는 독립부대인 백마부대를 마치 구월부대의 휘하였던 것처럼 구월부대의 제3연대로 부르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합동작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56] 하지만 이미 1952년 11월 5일 미군 역사파견대

53)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홍갑목」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이진호」 1952.11.13, 같은 문서; HQ, Partisan Command, FECLD(K), 8240AU,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54) 대령 이영순, 유격사단 부사단장·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2, 191면, 196면; 계인주, 앞의 책, 171면.

55)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0면 ; "UN Partisan Forces" 1951-1952, p. 99.

56) 「증언록 :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백마유격부대 전투사」(김응수 증언록), 1987, 육본 군사연구실 소장, 24면; 『북위40도선』, 94-95면.

와 진술할 때, 연풍부대와 합류했고 연풍부대가 구월산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었으므로 단대호를 구월부대로 바꾸었으며, 애도부대는 구월부대의 제3연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도 정일권 중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때 '구월부대 제3연대장 김응수'였다고 말했다.[57]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심지어 중요한 사건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 동아일보 기자였던 최경덕은 '역사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서해안에서 활동했던 반공유격대원이 거의 전향한 인민군으로, 자유를 찾아 전향한 때문인지 그들은 남다른 반공정신을 갖고 있다고 서술했다.[58] 사실은 북한출신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고향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반공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피난한 청년들이다. 이들 가운데 인민군 출신은 예외적으로 존재했을 뿐이었다.

중요한 전투도 누락되었다. 유격대 부대사 가운데 가장 객관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평가된 옹진학도유격부대사에도 많은 전과를 올렸다는 사실이 빠져있다. 1952년 11월 4일 미군 전사파견대와의 증언에서 바로 직전의 250명이 투입된 동남면 작전을 설명했다. 부대장 이종학은 195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41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100대의 우마차를 파괴, 30두의 황소, 약간의 소총을 노획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유격대원 11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59] 이 전투는 당시 전과보고를 받은 미군 보

57) 「증언록 :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The Narrative of Mr. Kim Ung Soo, Leader of Donkey 15", "UN Partisan Forces" 1951-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58) 최경덕, 『역사의 목격자』, 을지사, 1983, 85면.

59) "The Narrative of MR Lee Jung Hok, Leader of D 11", Nov. 4, 1952, The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1953, SN 1400(이

고서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부대사에서는 이 전투가 완전히 누락되었고, 부대장을 비롯해 간부들마저 이 작전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부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대원 규모나 전과의 과장이 많다. 이는 전쟁당시에도 군수의 보급에 영향을 미쳤고, 전후 부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나 보상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1986년 3월 이영순 대령은 미 제8240부대 규모를 2만 명에서 68,000여 명으로 증강시켰다고 말했다.[60] 그러나 실제로 대원 규모는 최고 수준이었을 때 2만여 명이었다. 1952년 9월 27일 전구급 사령부(극동군사령부/미 제8군사령부)는 유격대의 작전활동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력을 1953년 3월 15일까지 2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7월 15일까지는 4만 명으로 배가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952년 말경부터 대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주로 북한출신 피난민이었는데, 점차 남한출신이 늘어났다. 1953년 5월 유격대의 병력이 22,227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동키 제20부대의 경우, 1952년 11월 7일 부대 병력배치표를 보면, 오석산 공작지구에 9명으로 보고했으나, 전후에 전우회에서 정리한 문서에는 오석산파견대에 3개 분대 42명으로 정리했다. 또한 구월산 지구에는 82명으로 보고했으나, 전후에는 특별분대, 제1소대(1-3분대), 제2소대(4-6분대), 3소대(7-9분대) 171명으로 정리했다.[61]

『백호부대유격전사』에는 1951년 6월 중순경, 대원의 전체 규모가 1,000명을 돌파하였고, 1951년 말경에는 1,2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62]

하, 「부대장 이종학 증언」으로 줄임).

60) 육본 군사연구실,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766면

61) 구월부대, 「소속」, 날짜 없음, 전우회 자료.

62)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이 무렵 대원의 규모는 400명 수준이라는 진술도 있다(「김영복 증언」 1952. 11. 6). 『백호부대유격전사』에는 1951년 6월 중순

1961년 혹은 1975년에 전우회에서 정리한 문서에는 그 규모가 1,145명 혹은 1,700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63] 그러나 전쟁 당시 미 고문의 회고나 유격대 본부로 제출한 문서자료에는 1952년 2월경 대원의 규모는 565명이었다가, 11월 초 총 규모는 657명으로 늘었다.[64]

공수유격연대의 총 규모에 대해 대원들은 3,126명이라고 주장했다.[65] 그러나 미군 자료에 의하면 1953년 7월 1일까지 3,6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1953년 1월말 당시 부대의 규모는 527명으로 훈련 중에 있는 대원이 211명, 내륙기지(Interior Units)에 있는 대원이 278명, 행정지원 대원 38명 등이었다.[66] 2월말에는 372명으로[67] 줄어들어 5월말까지도 같은 규모였다.[68]

전과 과장의 경우, 유격대의 활동 횟수나 적에게 입힌 인명 손실을

경, 1,000명을 돌파하였다고 기술했다(130면).

63) 「8250제1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64) 「D4 백호부대 기구편성표 및 장비배치표」,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벤 S. 맬콤, 『백호유격부대전사』, 370면. 대원의 규모는 보급을 위해 약간 부풀려졌다고 한다.

65) 「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9면. 한국인 대원 1,533명, 미 장교 7명, 미 사병 등 1,551명이라는 진술도 있다(「덕소공수기지 편성 및 부대이동자료」, 1993. 4. 21).

66) "Recommendations for Employment of Partisan Forces", no date, 군사편찬연구소, 1164.

67) 이 무렵 대원의 규모가 336명, 혹은 390명이라는 기술도 있다(육본역,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이하, '유엔군 유격전'으로 줄임)』, 1988, 104면, 112면).

68) 「유격작전 제1단계 평가」, 1953. 5. 25, 『유엔군 유격전』, 305면 ;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군편, SN 1964 ;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군편, SN 1965. 그러므로 1953년 4월 1,132명, 5월 1,533명이라는 경우도 있으나(『유엔군 유격전』, 167면, 112면 ; 「덕소공수기지 편성 및 부대이동자료」, 1993. 4. 21), 1953년 5월 25일 평가 보고에 따랐다.

부풀렸다. 울팩 제2부대의 부대장의 공적서에 따르면, 1952년 3월 2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126회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기술되었다.[69] 그런데 자신들이 정리한 공적서에는 총 845회로 기록한 적이 있다. 1951년 4월 5일 입대한 이 모 소대장은 총 230회의 작전에 참가했고, 또 다른 소대장 성모는 210회를 치뤘다고 한다.[70]

전 동아일보 기자였던 최경덕은 1951년 4월 12일 울팩 제1부대 대원 1,600명이 개성탈환작전을 전개하여 다섯 시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격전 끝에 450여 명을 생포하고, 400여 정의 무기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나 유격대원도 200여 명이 전사했다고 기술했다.[71] 그러나 대원들이 정리한 그들의 '전투사(1983)'에는 개성작전은 3개 중대가 동원되어 중공군 162명과 북한군 장교 27명 등 257명을 생포했다고 했으나, 유격대원 200명이 전사했다는 기술은 없었다. 유격대의 규모는 정규군의 완비된 규모가 아니었으므로 3개 중대가 1,600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개성진입 이후 전과까지 62명을 생포했다는 기록도 있다.[72]

이러한 사례는 여러 부대에서 드러나서 이를 종합했을 것이므로, 미 제8240유격부대 전체의 전과는 더욱 과장되었다. 1951년 3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이 유격부대는 69,094명을 살상했다고 보고했다. 이 전과에는 유격대가 요청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에 의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73]

---

69) 이전시기까지 포함되면 작전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70) 「박상준 공적서」 1953.12;「이재철 공적서」 1953.12;「성병무 공적서」 1954.1.8, 같은 문서.
71) 최경덕, 『역사의 목격자』, 을지사, 1983, 85-86면.
72) 수색대가 토성까지 침투하여 적정을 파악한 다음 기습작전을 전개했고, 이 때 유엔공군과 국군 제1사단의 포격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개성을 완전 장악하는데 며칠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73) 『유엔군 유격전』, 31면, 79면, 142면.

이러한 요소로 미군 당국에서 유격대의 전체 전과를 크게 축소해야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평가할 형편이었다. 미 제8군 정보장교인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은 제8240부대의 유격대가 제출한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과장되었다고 확신했다. 이 유격대의 작전활동에 대한 미 육군의 평가의뢰를 받은 존스 홉킨스대학의 작전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의 평가에 따르면, 유격대가 보고한 사상자 수는 실제보다 3～10배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는 7,000명으로부터 23,000명의 범위라고 추산했다.[74]

부대창설일이나 작전일자 확인은 전후 5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구술에서는 매우 어렵다. 백호부대사에서 육도피습 일자를 1952년 2월 4일로 서술되었으나, 전쟁 당시 구술자료에는 육도기지 피습일자는 2월 2일이었다.[75] 연월일 상위는 매우 흔한 현상이었다. 심지어 작전일이 어느 해에 실시되었는지 증언자 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진술이 '상황적 진실'로서 공격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76] 잦은 작전일자의 혼선은 다른 증언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대의 창설일이 앞당겨지기도 했다. 백마부대사나 간부의 여러 증언에서 1950년 11월 22일을 부대 탄생일로 주장했다.[77] 이 부대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치안대 형태로 활동하다가 이해 12월 6일, 중공군이 대

---

74) 『유엔군 유격전』, 32면; 「퍼셀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75)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전후에 부대장은 69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억했다(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76) 정용욱, 「개인사에 반영된 '해방과 분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연구소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선인출판사, 2001, 14면; 김귀옥, 앞의 논문, 145면.

77) 『북위40도선』, 50-51면; 『민족의 증언』 5, 284면.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 오자, 다음 날 그들은 애도로 후퇴했다. 이 곳에서 유격전을 펼칠 것을 결의하여, 12월 11일 130명의 대원으로 '애도합동전투지휘소'를 창설했다. 애도에서 창설되었기 때문에 '애도부대'라고도 했다. 백마부대로 확대 개편된 시기는 1951년 4월초 서해리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둔 후, 부대 명칭을 평안북도 의주군 피연면에 있는 임경업 장군의 싸움터인 백마산성의 지명을 빌어 명명했다.[78]

전우회의 통일된 부대사는 대원들의 증언을 자유스럽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다. 즉 전쟁 당시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회나 일부 간부가 정리한 부대사를 근거로 얘기할 뿐, 자유롭게 증언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통일된 견해와 다른 의견은 전우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 부대의 경우, 백골병단이 창설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기록으로는 불분명하다. 결사유격대는 1951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각 부대별로 활동했다. 그 후 20일 적이 점령 중에 있는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퇴곡리 일대에 3개 연대가 집결하자, 채명신 중령은 육군본부 지시에 의하여 결사유격대 3개 연대 병력[79]과 사기막리 및 퇴곡리에서 자원 입대한 여성 및 청·장년 15명을 규합해 부대명을 '백골병단'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조치였다.[80]

그러나 결사유격 제12연대장 이두병이나 제13연대장 김한철은 '백골

---

78) 김응수 증언, 『민족의 증언』 5, 284면. 이미 1950년 11월 22일을 기하여 백마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북위 40도선』, 49-51면. 김낙형 소대장). 혹은 1950년 12월 7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79) 그 규모에 대해 500여 명 혹은 647명이라는 주장이 있다(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218면 ;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2003, 266면).

80) 백골병단 참전전우회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백골병단 전적비'에서 매년 10월 15일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병단'이 통합부대명이 아니라 제11연대를 개편 혹은 별칭인 것으로 주장했다. 즉 제12연대는 '인민군 제12사', 제13연대는 '인민군 제8사'라고 호칭하다가 '동해지구유격대사령부'로 불렀다고 한다.[81] 그는 작전 중 제13연대는 11연대장을 11연대대원을 만나지 못했고, 백골병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82] 결사유격연대가 귀환한 후 동해안유격대로 재편될 때, 이를 맡았던 박창암 소령은 3개 독립연대가 인수했지만 '백골병단'이라는 없었다고 진술했다.[83] 그러나 그 동안에는 결사유격대 보다는 백골병단으로 널리 알려졌다. 최근에는 백골병단 전우회 대신에 '육본직할 결사대' 전우회로 바꾸었다.[84] 그러므로 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역사적 진실에는 더욱 근접할 수 있다.

현실적인 이해에 따라 부대의 성격을 달리 주장했다. 대북공작원에 대한 전후 보상과 관련 부대의 성격을 전쟁 당시와 달리 주장한 경우도 있다. 정보국에서 편성한 결사유격대는 전쟁 당시를 비롯해 그 동안 유격대로 인식해 왔다. 즉 작전명령에서도 "戰局이 중대함에 비추어 강대한 무장유격대를 조직하여 此를 적진지에 각 요소에 침투하여……"라면서 '무장유격대' 임을 명시했고, 정보보고서에서 '아유격대

81) 결사유격 12연대장 이두병, 「탄원서」, 날짜 없음; 김한철, 앞의 책, 19-22면. 이에 대한 반론은 『백골병단전사』에 자세하다(249-252면). 그런데 1951년 2월 3일자 작전명령 4호 8항에서 "육군 ○○○은 통합지휘관으로서 부대 전체를 지휘 장악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명령 수령자가 제12, 13연대가 아니라 제13, 15연대장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연대의 귀환 후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장군 명의의 표창장에서 각 연대별로 처리되었다. 채명신 장군의 자력표에는 부대명을 유격대대로 표기했다(육본 정보 51).

82) 김형철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5.2.19; 김형철, 「소견서」, 2005.4.

83) 박창암(예, 준장) 진술, 1995.3.17.

84) 『국방일보』 2005.2.24.

제11연대 제1대대 제3중대장'의 진술을 언급했으며 결사유격 제11연대의 경우, 1951년 5월 1일 육군총모장 정일권 중장이 수여한 표창장에는 '결사유격 제11연대'로 명기되었다[85]. 그러나 당시 제11연대장 채명신이나 전우회에서는 작전 지역 현지 주민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단기작전을 수행했으므로 유격대보다는 특수임무부대 혹은 각 군단에 편성되어 있는 특공연대와 같은 특수작전부대의 성격임을 강조했다.[86]

동키 모부대도 대북공작원에 대한 많은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신들의 부대를 동키부대의 일원이었음을 부인하고 있다. 즉 전우회에서는 "부대의 모체는 육군첩보부대"라고 주장하고 있다.[87] 1951년 4월 15일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중장으로부터 부대장 김종벽에게 수여된 표창장에 "특수 임무를 띠고 단신 적진에 잔류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나, 그 출발은 자생적으로 투쟁했던 무장대원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김종벽 대위를 실종자로 처리했다가, 1951년 12월 26일자로 실종복귀 명령을 내렸다.

대부분의 증언자가 그렇듯이 불리한 사실은 진술이나 회고록에서 제외된다. 유격대 활동 중 지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살상, 간부들의 횡포, 대원들이나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밀무역 등에 대한 증언자료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술하기 위한 사전 조사나 구술에서 언급하기를 두려워했다. 또한 유격대연합회에서 현재 미국과 보상문제를

---

85) 작명 제4호, 1951. 2. 3 ; (육본 정보국, 「정기정보고서」 93, 1951. 4. 3, 『한국전쟁사료』 1, 1985, 1050면 ; 전 인식, 『백골병단』, 대한유격동지회, 1988; 김한철, 『마지막 침투한 대북유격대의 활약상』, 19면.

86) 채명신, 앞의 책, 248면 ; 채명신(예, 중장) 증언, 2002. 10. 29 ; 전인식, 「추모사」, 2003. 6. 5.

87) 구월산유격대 전우회, 「구월산 유격대원의 억울한 포로생활 진상규명 요청」 2003. 3. 24.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우회에서는 당시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대우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952년 11월 주요 부대장의 훈장 추천서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오직 불타는 애국심에 의해서만 임무를 수행했다"는[88] 것처럼 유격대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는 대원들이 칫솔이나 바지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9] 급여를 받았다는 일기표현을 두고 대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위에서 전쟁 당시 작전지역에서 실시된 미군 전사파견대의 구술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전사파견대의 구술도 한계가 있었다. 1952년 11월 3일 전사파견대와 동키 제20부대장 박동호와 참모장 임종득과의 인터뷰에서, 전 동키 제2부대장 김종벽과 버크 중령의 갈등, 그 결과로 171명이 조난을 당해 희생된 점이나, 나머지 대원들이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의 진술기록은 1951년 1월 초 작전에서 끝났다.[90]

대원 171명이[91] 희생된 사건은 김종벽 동키 제2부대장과 백령도 기지사령관 버크 중령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와의

88) 토마스 A. 다이 소령, 「훈장추천지건」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89) 조남혁 일기, 1953.1.25, 28; 이영재 일기, 1952.4.21.

90) "The Narrative of Mr. Lim Jong Duk, Sub-Leader, and Mr. Lee Byong Gun, Chief of Staff, Donkey 20"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당시 백령도 기지사령관 버크 소령도 이 사실을 부인했다 (the letter of Wm A. Burke, Maj Gen (R), USA, Aug. 7/11, 2002). 그러나 댈리(A.S. Daley) 중령은 대화도 사건을 언급했고(「댈리 중령 면담」,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당시 석도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독립 제41중대장 이동호 대위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풍랑으로 인한 조난사실을 확인했다(이동호 장군 증언, 2003. 7. 7 ; 한봉덕·김찬수 증언, 2003. 7. 9).

91) 익사자 160여 명이라는 진술도 있다(임창수, 「선서문」, "김종벽 부대장 영전 도미축하식」, 1952.4.7, 전우회 자료).

갈등으로 당시 식량사정이 대단히 궁핍하여지자, 김종벽 부대장은 구월부대의 제3연대였다가 동키 제15부대로 독립한 백마부대에 도움을 청하여 새로운 작전을 도모하려고[92] 청천강 대안의 이북까지 북상하여 우선 백마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화도에 상륙했다. 1951년 7월 24일 대원 330명은 중선 2척에 분승하고 KLO 고트대(이지녕)의 기선에 예인되어 취라도를 경유하여 25일 대화도에 도착했다.[93] 그곳에서 신미도 작전을 함께 실시할 것을 협의했으나, 버크 사령관은 대화도로 북상한 구월부대원들을 '반란부대'로 규정하고 백마부대로 하여금 무장 해제시키도록 했다. 27일 석도에 있던 30명도 해병대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했다.[94]

7월 30일 백마부대에 억류된 군악대 17명을 제외한 173명과 140명은 각각 2척의 중선에 분승하여 해병대의 호위아래 운양호에 예인되어, 남쪽으로 압송을 당했다. 이동 중 173명이 탄 중선(머구리배)은 풍랑으로 무인도인 덕도(德島) 근해를 표류하여, 김용택·나동현·백동건 등 171명의 유격대원들은 적탄에 맞아 전사한 것이 아니라 파도와 싸우다 익사했다.[95] 1955년 12월 20일 육군본부에서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인정했다.[96]

---

92) 김종벽 증언, 1985. 12. 5, 육본 군사연구실.

93) 최근 김종벽 부대장은 국군 첩보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는 주장도 있다(최일성 증언, 2003. 11. 4).

94)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 정채호,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 204-205면.

95) 1952년 11월 3일, 부대간부의 미군과 면담에서는 이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The Narrative of Mr. Lim Jong Duk, Sub-Leader, and Mr. Lee Byong Gun, Chief of Staff, Donkey 20"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당시 백령도 기지사령관 버크 소령도 이 사실을 부인했다(the letter of Wm A. Burke, Maj Gen (R), USA, Aug. 7/11, 2002). 그는 잘못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으나(이병근, 「약전」, 날짜 없음), 전후 소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댈리(A.S. Daley) 중령은 대화도 사건을 언급했고(「댈리 중령 면담」,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당시 석도에 주둔하고 있던 해

나머지 140명이 탄 중선은 사령부의 쾌속정으로 옮겨 탄 10명을 제외한 130명을 태우고 석도에 도착한 후 간부들을 제외하고 영등포 수용소를 거쳐서 부산 포로수용소로 옮겨갔다. 조난시 살아났던 2명도 1951년 9월 1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모두 149명이 수용되었다.[97] 이들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김일환(金一煥) 장군의 도움으로 억류생활 13개월 만인 1952년 8월 15일, 부산 거제리 제10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98]

그러므로 유격대 활동 관련 증언자료나 구술내용은 앞으로도 당시 미군 문서, 고문관 회고록, 타 부대원과 탈북자 등의 교차 증언, 북한과 중국 등의 사료를 통해 사실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반공유격대 활동의 증언자료는 문헌사료가 거의 없는 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많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 혹은 부정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를 들면, 구월부대에서는 전후 자신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구월산부대기념사업협회'를

병대 독립 제41중대장 이동호 대위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풍랑으로 인한 조난사실을 확인했다(이동호 장군 증언, 2003. 7. 7 ; 한봉덕·김찬수 증언, 2003. 7. 9).

96) 「구월산부대 전사 인정의결서」 1955. 12. 20, 육본 부관감실; 강기천, 앞의 책, 95면.

97) 거제도 포로명부에 이들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98) 『동아일보』 1952. 8. 15 ;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구월산유격부대전사』, 2002, 107-113면 ; 배인선 증언, 2003. 11. 4.

창설한 후, 자신들을 구월산 일대를 아우르는 '구월산' 부대로 불러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물론 전쟁 당시에도 표창장을 수여할 때나 저술에서는 '구월산부대'라는 인식도 있었으나, 1953년 9월 22일 용유도에서 전사자 570명에 대한 위령제를 지낼 때에나[99] 이 무렵 작성된 부대일지에도 '구월부대'로 되어 있었고, 당시 구월산 인근지역에서 활동한 다른 유격대원들도 자신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구월산부대로 부르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당시 체육대회 사진의 유니폼에는 구월부대로 표기되어 있었고, 고문관이었던 뉴맨(M. E. Newman) 중위가 제공한 사진에는 분명히 '구월부대 본부'로 나타나 있었다. "한 장의 그림은 천 마디의 말에 해당된다"는 예가 될 것이다.[100]

이러한 요소로 인해 유격전사를 연구하면서, 필자도 증언기록이나 구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고민과 혼란을 많이 겪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는 문서자료를 통한 검증으로 전체 유격대 활동을 불신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군 당국은 1953년 2월 1일부터 3월 중순까지 적군이 대규모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개성부터 서울로 공격하여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면, 유엔군유격대(UN Partisan Infantry Korea, UNPIK) 즉, 미 제8240부대 전 대원을 동원할 것으로 상정했다. 이를 위해 전체 약 2만 명의 유격대원에 대한 훈련을 마칠 예정이었다.[101]

본고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서자료 부족이나 추가적인 구술작업의 어려움으로 역사적 사실의 복원이 쉽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유격대 관련 증언은 개별적인 증언이

---

99) 구월부대 2중대 1소대 선임하사 정기찬,「추도사」1953.9.22, 전우회 자료.
100) 월터 J. 옹,『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6면.
101) "Recommendations for Employment of Partisan Forces", no date, 군사편찬연구소, 1164.

아니라 대개 전우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집단기억' 형태로 생산되었다. 그 결과 동일 사실에 대해 많은 이견 혹은 버전이 존재할 수 없어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심지어 참전사실 확인을 위하거나 전사상(戰死傷)으로 인한 보훈관계를 신청할 할 때, 대개 당사자 혼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우회를 거쳐 조정이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수 없었다.

증언자료을 전사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증거능력(quality of evidence)를 제고하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파견대(MHD)의 활성화이다. 6.25전쟁시 이미 파견한 미군의 예처럼 전쟁 당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리해야 한다. 현재 PKO 작전에 관한 기록도 그들의 귀국보고서와 전훈분석 차원이 아니라, 전사전문가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아직 그러한 인식이 약해 체계적인 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

작전이나 사건이 종료된 후라도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유격대의 예를 들면, 이미 휴전 후 비정규군에서 국군으로 편입될 때 기록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병적 관련자료나 전투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참전 대원들의 청원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군관련 연구기관에서 구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증언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전쟁사 연구의 보조적인 자료로 증언을 청취하고 구술받은 내용을 정리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격대 관련 기록의 허술한 관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1998년의 해프닝이다. 이 당시 정부기록보존소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의 문서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6·25 전쟁 당시 비정규전을 펼쳤던

유격부대의 조직편제와 활동상황 파악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비정규 유격부대의 부대편성표 1권과 부대원 명부 3권 등 모두 4권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102]

그런데 이 자료는 전쟁 당시 자료가 아니라, 1962년 국방부가 전쟁 중 국군 또는 유엔군 부대의 일원으로 종군하여 군에 복무한 자 가운데 전공, 사상, 심신장애 등으로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귀가한 자에 대한 복무조정을 실시할 때 각 유격대의 대표들이 제출한 문서였다.[103] 당시에는 현재 전하는 문서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이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여러 판본의 차이를 조사 활용하면 다른 문서자료가 없더라도 구술상의 의문점이나 오류를 발견하게 되어 추가적 증언의 보충자료가 된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 학도유격대 관련 증언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몇 사안에 대해 진술시기마다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부대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증언자료 가운데 시차를 두고 존재하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한다.

---

102) 『서울신문』 1998.10.2.

103)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복무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962. 10. 10, 정부기록소 소장 ;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 복무확인 작업결과」, 1965. 8. 4, 같은 문서 ;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복무 조정업무 종결보고」, 1966. 6. 7, 같은 문서.

* 모 학도유격대의 증언 예

	미 전사파견대와 면담 (1952.11.4)	육본 군사연구실 면담(1986.12.2)	부대사 기술(1992)
창설당시 규모	약 400명	천 수백 명	700명
버크사령관 방문 (1951.3.27) 내용	대원 7명 방문, 소총 14정과 3가마 수령	간부 11명 방문, 소총 11자루와 군량미 11포대 수령	방문과 부대 편입 사실만 서술
제1차 교정 작전 (일시/전과)	1951년 4월 15일	생략	4월 18일
	피난민 1,200명 후송, 북한군 17명 사살, 쌀 1,500가마 노획		북한군 10명 사살, 쌀 3,000가마 노획
제2차 교정작전 (일시/전과)	1951년 4월 18일	생략	5월 16일
	20명 전사, 50명 탈출		19명 전사, 12명 실종
소강작전 (일시/규모/전과)	1951년 6월 17일	생략	7월 14일
	출동 대원규모: 70명		출동대원 규모: 특공대 30명
	전과: 18명 생포, 50명 사살		전과 : 실패

즉 동일 증언자의 시기를 달리한 증언자료는 비교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보충해 증언자의 교차 증언도 필요하다. 상술한 대로 유격대의 경우 생존 대원들이 대개 전우회에 소속되어 있어 대원들 사이의 교차증언이 사실상 어려웠다. 다행히 간혹 전우회에 소속되지 않는 생존자의 존재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력한 간부가 아니면 전우회에서 정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미 태평양공군 군사연구실의 참전자 증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공군본부 군사연구실과 합동으로 장지량(조종사, 예 중장), 최원문 대령(정비사, 예 대령) 등 7명에 대해 그룹 인

터뷰를 실시했다.[104] 이러한 방식에서 나아간다면 국내외 참전자에 대한 동시적 구술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해마다 많은 해외 참전자들이 재향군인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에 대한 증언청취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 전문가가 생존해 있는 미 고문관들에 대한 증언이나 혹은 고문관과 대원들이 함께 증언을 한다면 더욱 사실이 더욱 풍부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다.

동일한 부대나 작전활동을 한 참전자나 유격대와 같이 구술대상이 동일한 집단인 경우 증언시 표준항목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미국 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전 참전자 증언을 위한 질문서(Army Service(Korean War Questionnaire)"에는 소속, 복무기간, 훈련 등 일반사항 외에 전투사항, 피난민 처리, 인사운용체제가 사기에 미친 여향, 전쟁시 경험을 누구와 얘기할 때 가장 편한가, 참전한 전투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본 경험과 정확성 등 전후 경험 등 100개 항목이 넘는다.

증언시 전문가가 개입하여 체계적인 진술을 청취했다면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진실이 풍부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미 공간된 회고록이나 부대사가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분석한 후 구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언기록이 많아도 이를 확인하는데 번거로울 뿐 새로운 사실을 알기 어렵다.

1980년 중반 육본 군사연구실에서 참전자 증언을 하면서, 이미 전우회에서 발간한 『북위40도선』에 대한 보충적 면담보다는 증언자가 이미 정리해 놓은 회고담을 정리한 경우가 그대로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1987년 9월 1일 부대장을 역임했던 김응수의 증언 분량이

104)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 증언록』, 805-821면.

200면이 넘는다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105] 그 후 다시 1990년 1월 22-23일, 2월 9일과 20일 등 4회에 걸쳐 다시 구술을 받았지만 '6.25의 역사적 배경', '배일사상' 등 추상적인 사안에 그치고 말았다.

상술한 대로 동키 제4부대 전우회에서는 비디오 증언을 시도하고 증언록을 발간하는 등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기에 많은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 할 뿐이다. 전쟁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1952년 8월 30일 02시, 대원 60명이 미군 장교 2명의 지휘아래 용연군 선교리 해안가(XC540243)를 상륙하려다 북한군의 반격으로 교전 중 6명을 사살했고, 피난민 11명을 구출했다고 기술되었다. 또한 미군 장교 2명과 대원 20명이 백석동(XC579194) 지역으로 진격하여 다른 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을 공격하여 8명을 추가로 사살했다.[106] 하지만 부대사에는 대원 90명이 선교리 해안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청돌동으로 상륙해 전투를 벌여 북한군 40여 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한 것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2003년 전우회에서 생존 대원에 대한 증언을 실시해 발간한 자료에서도 여전히 부대사에 의거한 아니 부대사의 내용을 좀더 생생하게 했을 뿐이었다. 여전히 대원 90여 명이 출동했고, 상륙지점 또한 청돌동으로 진술했다. 상륙 당시 교전 상황도 역시 언급되지 않고, 전투 경로 역시 다르며 전과 또한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진술했다.[107] 즉 부대사에서 언급된 사실이 최근에 다시 증언을 들어도 문서로 보고된 내용과 계속 다르게 진술되었다.

6.25전쟁 중 단위 반공유격대가 많았던 까닭에 많은 부대사가 발간

105)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513-716면.
106) CCRAK Guerrilla, "Summary No. 105" Sep.1, 1952.
107) 박두호, 『산 증언을 통해 본 백호유격부대의 빛나는 전투』, 2004, 276-279면.

되었다. 아직 부대사를 발간하지 못한 전우회에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부대사를 정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전우회에서 발간한 부대사에는 '옹진학도유격부대사'나, '백호부대 증언록'을 제외하고는 대개 증언자를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내용의 신뢰성, 추가증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모유격부대 전사』(2003)의 경우, 본문이 모두 400면이 넘지만 그들의 활동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외형적인 체제에 치중하여 두툼한 부대사는 편찬되었지만, 전쟁 배경・상급부대의 운용・일반 전황 등에 대해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정작 자신들의 활동이 보충되지 못한 채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사 보다는 개별사건, 아니면 유격대원 개인의 회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훨씬 자료적 가치가 많을 것이다.

증언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짤막한 메모나 일기, 미발간된 개인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타이완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에서는 구술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부정기간행물인 『口述歷史』를 통해 외부구술원고를 정리해 편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08] 그런데 일기나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참전자들은 이를 단순히 사료고 속에 보존하기 보다는 전쟁기념관과 같은 전시시설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기념관에서는 전시할 공간이 좁고, 교체전시를 활발하게 하지 않으므로 전시할 일기나 문서의 소장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기증을 꺼려한다.[109]

전문가 양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구술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108)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口述歷史' 編輯委員會, 『口述歷史』 11, 臺北, 2002.

109) 기증된 자료들이 수장고에서 사장되기 보다는 자주 교체되면, 자료의 기증도 늘어날 것이다.

한다. 구술사 활동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은 물론 초등학교,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110]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다른 학문에 비해 역사연구가 문헌고증적인 방법이 대세를 이루어 근현대사 분야에서 구술사 방면에 대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사학과 교과과정에서도 구술사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강의되지 못하고 있다.

사학과의 학부나 대학원에서 '한국사자료조사연구', 고문서연습, 금석문 연습 과목처럼 구술사도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사료의 한 형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부 미국대학에서의 '기억과 역사'(History and Memory; Memory and Orality in African History; Memory, Memoirs, and Modern Jewish History) 등과 같은 과목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역사기록을 잘 선별하여 보존 정리함으로써 역사연구를 가능케 하고 역사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주로 현행 및 향후 생산될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이다. 육군의 경우, 기록물관리규정이 제정된 후 기록물 전문관리기관으로서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육본 및 직할부대의 기록물관리를 위해 사단급 및 각급 학교 이상 부대에 기록물관리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111] 그런데 6.25전쟁을 예로 든다면, 구술사료의 확대와 같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없이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민원 자료에서 흩어져 있는 사진・증명서・진정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그들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10) Donald A. Ritchie, *op.cit.*, pp.188-221.

111) 서석제·이효상, 『육군기록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27-29면.

ABSTRACT

"Critical Application of Witness Commentaries: The Case of Guerrilla Warfare in the Korean War"

Cho, Sung Hun
(Lecturer, Dept. of History, Hannam University)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activities that are the concern of this article took place largely in North Korea or behind the enemy-held lines. Verifying their history is accordingly difficult and requires careful attention, but despite their active operations the military as well as the scholarly community have been lax in studying them. The Korean War came to be perceived as a traditional, limited war with regular battles, so that the studies addressed mostly the regular operations, and guerrilla warfare is remembered as an almost 'exclusive property' of the communist invaders; a small wonder that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have not been studied much and the collection of materials neglected. Therefore, in contrast with the witness accounts concerning regular battles, witness resources were of a small volume about these "patriots without the service numbers."

For the above reasons the guerrilla participants and their later-organized fellowships took to the task of leaving records and compiling the histories of their units. They became active preservers of history in order to inform later generations of their works and also to secure deserved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in a world where none recognized their achievements. For

instance, 4th Donkey Unit published witness accounts in addition to a unit history, and left video-recordings of guerrilla witnesses before any institute systematized the oral history of the guerrillas. In the case of Kyulsa ("Resolved to Die") Guerrilla Unit, the unit history was 10 times revised and expanded upon for publication,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recovery of anticommunist guerrilla history which had almost totally lacked documented resources.

Now because the guerrilla-related witness accounts were produced through fellowship societies and not individually, it often took the form of 'collective memory.' As a result, though thousands of former guerrillas remain surviving, the scarcity of numerous versions of, or perspectives upon, an event renders difficult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historical truth. Even requests to verify the service of a guerrilla member or to apply for decoration or government benefits for those killed in action, the process is taken care of not at the hands of the first party but the veteran society, so that a variety of opinions are not available for consideration. Moreover, some accounts were taken by American military personnel, and since some historians, unaware of official documents or evaluation of achievements, tended to center the records around their own units and especially to exaggerate the units' performances, they often featured factual errors.

The following is the means to utilize positively the aforementioned type of witness accounts in military history research. It involves the active use of military historical detachments (MHD). As in the examples of those dispatched by the America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experts should be dispatched during, and not just after, wartimes.

By considering and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perspectives on the same historical event, even without extra documented resources it is possible to arrive at the errors or questionable points of the oral accounts, supplementing the additional accounts. Therefore any time lapses between witness accounts must be kept in consideration. Moreover when the oral accounts come from a group such as participants in the same guerrilla unit or operation, a standardized list of items ought to be put to use.

Education in oral history is necessary not just for the training of experts. In America where the field sees much activity, it is used not only in college or graduate programs but also in elementary and lifetime educational processes. In comparison in our nation, and especially in historical disciplines, methodological insistence upon documented evidences prevails in the main, and in the fields of nationalist movement or modern history, oral accounts do not receive adequate attention. Like ancient documents and monuments, oral history also needs to be made a regular part of diverse resource materials at our academic institutes for history. Courses in memory and history, such as those in American colleges, are available possibilities.

Key words: witness commentaries, the Korean war, the anticommunist partisans, units history, army records center, veteran society, military historical detachment, oral history program, version, archivists